

투병중인 노교수의 자택 전시

목정배 교수 '우리 동네 소풍가요', 5월 3일~5일

혈액암으로 투병중인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가 '우리 동네 소풍가요'라는 제목으로 5월 3일~5일까지 자택전시회를 연다. 목 교수는 지난 10월 발병 이후 7개월 동안 병원에서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도 몸이 허락하는 동안에 작업한 작품 120점을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미친 목정배 교수는 "병원에 있으면서 몸이 나은 듯하면 그림이나 얼굴을 그렸다. 20~30명이 병문안을 왔는데 이제 나아서 걸어도 다닐 수 있으니 병문안 온 분들을 초대해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마당에 꽃이 지기 전에 손님들을 초대하고 싶어 5월 초로 전시 날짜를 정했다. 목 교수는 "오시는 분들이 차도 마시고 김밥과 다과도 드시며 그림을 보고 가면 좋겠다"고 말한다.

평소에도 지인들에게 반야심경 글씨를 써서 나눠주곤 했다는 목 교수, 이번에는 감인대(堪忍待)라는 글씨를 통해 기다리면 희망이 오고 성공이 온다는 긍정의 메시지를도 전해줄 예정이다.

병마의 큰 고비를 넘기고 얼마전 아들과 흥련암 등으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온 목정배 교수. 병중에서도 희망을 찾는 그의 의지를 만나고 싶다면 서울 성북구 종암동 33-71번지 미친 자택으로 들러보자.



목정배 교수의 '자화상'

전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02)2254-1671 정혜숙 기자

끈처럼 이어진 인생사 無로 표현

백동연 화백 개인전 5월 12일까지

백동연 화백의 개인전이 5월 12일까지 서울 정현갤러리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40여년 작품활동의 결정체인 서예, 문인화, 수묵화, 아크릴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50점을 선보인다.

한학자이자 서예가이며 문인화가인 부친 옆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작가는 먹을 갈면서 자연스럽게 서예와 문인화를 체득하게 됐다. 이번 전시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무(無)시리즈는 암 수술후 인생관과 가치관의 변화를 거치면서 탄생시킨 작품이다.

백 작가는 "자체(字體)가 서로 다른 수많은 없을 무(無)자를 연결시켜 만든 작품이다. 다양한 인간사 즉 수없이 얽혀 있는 인간세계를 표상화한 것으로 불가에서 말하는 인드라망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인생사는 각각 무관해 보여도 끈처럼 이어져 있어 모두가 소중하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먼지처럼 재가 되니 개개인의 소중함을 알고 과욕을 버려 좋은 인연을 유지하자는 작가의 뜻이 담겨 있다.



백동연 화백의 '無'

작가는 "무자 144자가 들어간 재가 되어 사라지는 의미를 담은 검정색, 흙이 되어 사라지는 황토색 등으로 작품을 표현했다. 글자 사이의 검은 색은 희노애락(喜怒哀樂)과 같은 다양한 인생사를 상징하는데 결국은 무(無)는 소멸(消滅)이라는 등식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다.

한편, 백동연 화백은 백 화백은 (사)남마다좋은날의 행복바라미 거리모금 캠페인의 캐릭터 '바라미'를 디자인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또한 반갑다연우야 산하의 재능기부 봉사단체인 사랑재를 결성, 초대단장을 맡아 후원 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 경허·만공스님을 기리며

20세기 한국불교의 섯별

불세존 쌍림에서 열반 보이시고
천년 천년 또 천년 시공을 넘어
해동국에 한 줄기 광명 비추시니
법등 밝힌 용암 경허 만공대선사
불 해명을 이어 선종을 드날리어
배달의 땅에 우담바라 만발했네

경허선사 가신 지 100년

경허선사 가신 지 어언 백여 년
덧없는 세월 강물처럼 흘렀건만
서릿발 같은 선지와 오묘한 도리
새벽녘의 섯별처럼 사바 비추니
후학들 가슴에 천등으로 울리네
어이 있으랴 선지식의 높이신 덕

만공선사를 기리며

나라 잃은 사바에 빛으로 오시어
법등을 잇고 불법 전통 지키시고
형형한 법등으로 후학을 이끄시니
오늘도 그 선종 시방에 두루하네
선사의 크신 서원을 마음에 새겨
만공탑을 우러러 선덕을 기리네

대한국 사해의 등불되리

반만년 배달의 땅 동방의 빛
면면히 이어온 선가의 전통
성성한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마음속 불성이 눈을 뜨는 날
해동국 대한이 불국토 되어
장차는 사해의 빛이 되리라

“선지식 가르침 四海의 빛이 되리라”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 기념곡 16일 수덕사에서 공연

경허선사 열반 101주년을 맞아 탄생한 '경허·만공 스님을 기리며'의 가사 전문이다. 총 4절로 구성된 이곡은 반영규 작사·박범훈 작곡으로 4월 16일 수덕사에서 열린 '경허선사 선양음악회'에서 초연됐다. 도신 스님과 김성녀 그리고 조계사 합창단이 함께한 이 무대는 경허·만공 스님의 뜻을 기리는 자리가 되었다.

이 곡을 작곡한 찬불 작사가 반영규 선생은 한국 선의 법맥을 이은 경허 스님과 일제의 강점기에 맞선 만공 스님의 업적을 기리며 작사에 몰입했다고 전했다.

"선이 전래된 신라의 구산문(九山門) 이후 고려의 불일 보조국사의 정혜결사의 선맥을 이어 조선 서산대사가 그 맥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세의 대선사 경허 스님이 우리의 선 그 법맥을 이었죠. 또한 경허 스님의 제자인 만공 스님은 일제의 강점에 맞서 우리의 전통을 지켜, 21세기 한국 선

풍이 온 세계에 풍미할 것을 확신하고 또 기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작곡가 박범훈 선생은 열반 100주년을 맞은 1년전 기념음악회를 의뢰 받으며 작곡도 부탁받았다고 한다. "우리 불교의 큰 업적을 남기신 스님들의 업적을 노래로 만들 수 있어 무척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영규 선생님께서 너무나 좋은 작사를 해주셔서 곡을 붙이는데 큰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합창곡과 독창을 어우러지게 작곡한 이 곡은 추모곡이지만 너무 무겁지도 슬프지도 않게 경쾌하게 찬탄할

경허·만공스님을 기리며

반영규 작사·박범훈 작곡

세계에 한국 禪 알리고자



경허·만공 스님을 기리는 추모곡이 탄생했다. 도신 스님, 김성녀, 조계사 합창단이 수덕사에서 초연을 펼쳤다.

수 있는 찬불가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수덕사에서 개최된 이번 음악회는 경허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만공 스님의 탄신을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음악회는 前중앙대학교

총장 박범훈 씨가 총지휘했으며 장사의, 김덕수 사물놀이패, 김성녀, 김영민, 도신 스님, 박애리와 팝핀현준, 아웃사이다 등이 출연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경·불화 아시아고판화 서울 나들이

5월 5일까지 템플스테이홍보관서 전시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이 서울 나들이 특별전을 개최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주최하고 고판화박물관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5월5일까지 템플스테이홍보관에서 열린다.

전시에서는 고려시대 법화경 '변상도'를 비롯해 중국, 일본, 티베트, 몽골, 네팔, 미얀마, 태국 등의 목판 원판과 불경·불화 판화 50여 점을 선별해 전시한다.

고판화박물관 관장 선학 스님은 "왕족이나 귀족들에 의해 만들어졌던 고려불화나 사찰의 장엄용으로 만들어진 불화다. 하지만 민중들이 생활 속에서 부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빌기 위해 즉자 형태의 예배용 판화불화를 만날 수 있다. 나라별로 다양한 양식적인 특징을 살펴볼 수 있

다"고 설명했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한국의 △고려법화경 △법화경 변상도 △조선훈 불정심다라니경 △중국 절강성박물관 남송본 불설아미타경 △불정심다라니경 △불설아미타경 △금강산사대찰전도 △천수신묘장구대다라니경 등이 있다.

중국 유물로는 △불정심다라니경 △아미타태영도(목판) △대세지보살목판 △양지간음 등이 있으며, 일본은 △용통염불연기 △오백나한도 △태장계만다라 △아미타경 변상 등이 있다. 이밖에 미얀마 태국의 불경 작품, 티베트와 몽골의 백산계대다라니경과 채색석가모니불 불화 등이 전시된다.

한편, 이번 전시와 더불어 템플스테이 홍보관 앞에서 매주 금·토·일 3주에 걸쳐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은 5월 5일까지 템플스테이 홍보관서 특별전을 개최한다.

무료로 전통인쇄문화체험도 진행된다.

선학 스님은 "전시관람은 물론 체험활동으로 아시아의 자랑스런 인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또한 템플스테이 10주년을 기념하고 이를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생각- 2 이상의 한약향기

동의보향
DONGUIBOHYANG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에서 향이 좋은 생약을 엄선하여 제조한 한방방향제로 생활공간에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천연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성분의 방향제와는 달리 심신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거실, 장롱 등**
***행사, 선물용 대량 구매시 상담해 주세요**

고요한 향기 퍼져~
고요해 지는 마음

동의보향
062)385-9954

제조원 수풀림 주문전화 (062)385-9954 010-5607-3313 입금계좌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건강한 자연을 담은 웰빙문화의 시작

히노끼 편백차탁

크기 : 55x32x12cm

출시기념 할인행사 +150,000원 → 40% → 90,000원

편백차탁
Healing

- 일본산 히노끼로 100% 국내 제작입니다.
- 전통가구 소목장이 수공예로 제작하여 정교하고 튼튼합니다.
- 편백(히노끼) 고유의 향은 스트레스 완화, 심신안정의 효과가 탁월합니다.
- 피톤치드의 항균효과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들의 다과, 음료 등의 차탁으로 사용하시면 건강까지 생각할 수 있어 더 좋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기술이전사업
수풀림수침대(주)
www.supulimbed.co.kr

친절상담 · 주문전화 ▶ 080-474-0011